가구 장식의 꽃, 장석(裝錫) 관련 어휘 연구
-경남 진주 두석장(豆錫匠)의 말을 중심으로

홍 기 옥*

Ⅰ. 서론
Ⅱ. 조사된 장석 관련 어휘
  1. 장석 재료 관련 어휘
  2. 제작도구 관련 어휘
  3. 장석 종류 관련 어휘
Ⅲ. 요약 및 마무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장석(裝錫)과 관련된 어휘 표현을 현장조사를 통해 범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장석 생산이 활발하던 경남 진주시의 두석장(경남 무형문화재 31호 정한열 씨)을 대상으로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사전에 마련한 질문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준비하지 못한 조사 항목이라도 조사 도중에 제보자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어휘들에 관해 이후 다시 질문지를 마련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석의 개념, 재료, 제작도구, 제작기법, 종류(제작품), 제작행위 등의 범주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물은 어휘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초빙교수 / gohong@uu.ac.kr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조사 어휘별로 해당 어휘의 올림말, 해당 표준어, 발음, 품사, 뜻풀이,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구술사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관련 어휘(221개), 음성자료(구술자료, 음성 분절자료), 사진자료(180장), 영상자료(3개 파일)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 생활도구와 관련된 어휘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주제어
장석, 두석, 어휘장, 두석장, 어휘의미론

Ⅰ. 서론

‘장석’이란 목공품 같은 생활 용품을 제작할 때에 기능적인 필요나 장식적인 필요에 의해 목가구에 부착되는 금속재 장식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고 이 장석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豆錫匠)’[1]이라고 부르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주석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방을 ‘주석방’이라고 불렀다. 두석장이라는 용어는『경국대전』공조(工曹)의 경공장(京工匠) 가운데 포함된 두석장에서 연유한다. 장석을 ‘두석(豆錫)’[2]이라고 해서 콩 두(豆)를 쓰는 것은 쇠붙이에 망치질을 할 때 콩콩 튀고, 장석이 콩처럼 노란색을 띄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 뿐 아니라 목재의 이음을 보강하기 위해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데 장석은 이러한 보강 기능뿐 아니라 나아가 장식적인 기능까지 하고 있다. 장석은 목가구의 짜임과 이음의 보완과 같은 기능 강화, 구조적 보강 뿐 아니라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장석의 역사는 아주 고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철기시대 이후 여러 금속 기술이 보급되면서 여러 철재 용품이 제작되었으며, 여기에 장석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장석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지만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장석이 지배층의 생활품으로 제작, 사용되었기 때

1) 두석장은 가구에 부착하는 장석을 만들뿐 아니라 의례용품, 군사용품, 의복장식 등 다양한 기물, 장식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2) 두석이라는 용어는 옛 문헌에서도 다소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희(柳僖)의『물명고(物名考)』에서는 두석이 황동이나 주석과 같은 말이라 하였고, 황동은 적동과 왜연(倭鉛)의 합금인데 흔히 두석과 두석(斗錫 : 연성하지 않은 왜연)을 잘못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규경(李圭景)의『오주서종(五洲書種)』에서는 “중국에서 왜연이라 하는 것과 일본에서의 아연(亞鉛)과 우리나라에서 함석(含錫)이라 부르는 것이 실은 한가지 물건”이라고 하였다. 또『현종실록』은 함석을 섞어 두석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두석장은 놋쇠를 다루어 장석을 만드는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에 백성들에게 장석은 보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목가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17세기 정도부터 그들도 장석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장석은 18세기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장석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장석은 지역에 따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경상남도의 주요 장석 생산지 중 하나인 진주는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사족이나 부농이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전통가구 등이 많아 장석의 수요가 많았으며 오늘날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가구 제작업체가 있는 것도 이러한 전통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주는 소목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였던 정돈산이 운영했던 고전 공방이 있어 이 지역의 소목공예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가구로 평가되고 있다. 진주는 현재 전국에 가장 많은 소목가구 생산업체가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진주시 향토민속관에 장석전문 전시관이 있다. 이 장석전문 전시관은 진주의 태정 김창문 옹이 40여 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서양가구의 보급으로 하찮게 버려지던 수많은 장석, 가구를 수집하여 자택에서 사립으로 전시관을 운영해오다가, 1999년에 수집품을 진주시에 기증하였다. 현재 이 민속관에는 장석 8만 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진주의 두석장은 기능전승계보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전통장식 제작에만 종사하여 기능의 숙련도와 우수성이 뛰어나고 전통가구 제작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여 장석의 생산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제까지의 장석에 관한 연구는 미술사학이나 민속학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장석의 형태, 문양,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였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석전문 전시관이 있을 만큼 장석에 관한 관심이 많고, 전국의 주요 장석 생산지인 진주에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 31호 두석장 정한열을 제보자로 하여 조사하였다.[3)]

3) 제보자이신 두석장 정한열 선생님은 2019년 6월 22일 돌아가셨다. 이 자리를 빌려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장인(匠人)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경상남도 고시 제2019-259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경상남도

그를 찾아 장석이란 무엇이며, 장석의 재료, 장석의 도구, 장석의 종류, 장석의 제작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장석과 관련 어휘, 표현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석에 관한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4].

두석장 정한열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공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두석 일을 접하였다. 도목수인 아버지의 권유로 두석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월급 없이 심부름을 하고 다녔고 1년 동안은 두석 연장 이름만 익혔다. 공방에 들어가서 3, 4년 후에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박명수 공방에 입사하였고, 1978년에는 서울 중랑구의 이문동 유용호 공방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1980년에 진주에서 공방을 운영하였다. 제 17, 18, 23, 25, 26, 27, 28, 30, 31, 35회 경남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제 3, 7, 13, 14, 15, 20회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다. 1994년 신안동 현 공방으로 이전하여 1999년 전승공예대전 수상, 2002년 문화 관광 상품 공모전에 수상하였다. 2005년 1월에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31호 두석장으로 지정되었다.

지사, 2019-07-18. 인정해제 사유 2019.6.22 사망.

4)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에 대한 조어적 특징, 형태의미론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좀 더 입체적이고 정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 연구 자료로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석 관련 기초자료 정리하는 수준에서 논문을 작성하였다. 조어적 특성, 형태의미론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작업과 나아가 타 지역 장석 어휘와의 비교 연구, 다른 분야의 작업 어휘와의 관련성 등을 밝히는 어휘 연구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 연구가 완성도를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짚어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사진 1> 두석장 정한열

<사진 2> 조사 장소-작업장

장석 관련 어휘의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사전 면담을 통해 조사의 목적과 내용 등에 관해 알려주고, 본 조사에서는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사전에 마련한 질문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준비하지 못한 조사 항목이라도 조사 도중에 제보자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어휘들에 관해 이후 다시 질문지를 마련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어휘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사 자료는 Transcriber 전사 프로그램, Excel 프로그램, Protege-5.3.0-win 프로그램[5]을 활용하여 정리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촬영사진은 제보자 공방의 도구와 제작품은 물론 진주시의 협조를 받아 진주시 향토민속관 내의 장석전문전시관의 장석도 촬영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구술

5) 관련 어휘장 구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이론적 배경은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는 광의적으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concept)과 그 개념의 속성(attribute)은 무엇이며, 개념들이 상호간에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relation), 개념들의 실질적인 사례(instance)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개념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Protege-5.3.0-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은 동영상 촬영을 병행해 하였다. 어휘 조사는 정한열의 공방(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에서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장석의 개념, 재료, 제작도구, 제작기법, 종류(제작품), 제작행위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6]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7]

<표 11> 조사 내용

범주	조사 어휘
개념	두석, 장석, 두석장
재료	무쇠(거멍쇠), 청동, 황동, 백동
제작도구	불우리, 화덕, 풀무, 골판, 골판 상자, 집게, 쇠판, 망치, 모루, 작두, 통박, 차장, 깍칼, 차장, 차장받침쇠, 꺽쇠, 굴림통, 정, 줄, 본, 그림쇠, 그음쇠, 땜숟갈, 붕사, 붕사그릇, 활비비, 솟대, 갈기, 광쇠, 도가니, 오가리
제작기법	단금기법, 열도림, 판금기법, 조금기법, 투각기법, 땜기법, 주조기법, 조이법
종류	경첩코말이, 들쇠, 자바라, 눈썹, 귀잡이, 몸통, 앞바탕, 감잡이, 뻗침대, 광두정, 문귀잡이, 통귀쌈, 자물쇠
제작과정	쇳물 녹이다, 물 붓다, 철판 만들다, 철판 늘리다, 표면고르기, 본 그리다, 정질하기, 모양따내기, 조각놓다, 조이질하다, 못구멍 뚫다, 줄질하다, 갈길질하다, 장석표면 닦다.

6)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조사 연구 내용 중 2008년부터 필자가 조사한 생활어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립국어원(2008) 연구 참조.

7) 장석 관련 어휘의 조사 내용은 <표 1>의 내용과 같으나 분량상의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전체 내용 중 재료 관련 어휘, 제작도구 관련 어휘, 장석 종류와 관련된 어휘를 다루었다.

Ⅱ. 조사된 장석 관련 어휘

1. 장석 재료 관련 어휘

1) 무쇠/ 거멍쇠/ 꺼멍쇠[8)]

장석의 재료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무쇠이다. ‘무쇠’는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으로 단단하나 부러지기 쉽고, 강철에 비해 쉽게 녹이 슨다. 무쇠를 경상도 지역에서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거멍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꺼멍쇠’로 어두경음화 하여 발음한다. 이 거멍쇠는 무쇠가 습기에서 쉽게 부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검은 그을음을 쇠고 들기름을 발라 검게 만든다. 이 작업은 3-7회 반복하여 만드는데 횟수가 많을수록 검은 빛을 띤다고 한다.

2) 청동, 황동, 백동

청동은 거멍쇠 다음으로 사용된 재료로, 청동으로 제작된 장석은 거의 고려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청동 장석은 남아 있는 양이 많지 않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주조성과 내식성이 뛰어나다. 청동 다음으로 황동이 사용되었는데 누런빛이 난다고 해서 황동이다.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넣어 만든 합금으로 가공하기 쉽고 녹슬지 않아 공업재료로 많이 쓰는 재료이다. 백동은 가장 나중에 사용된 재료로 흰빛을 띤다. 백동이 본격적으로 장석의 재료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이다. 그러므로 백동 장석은 가장 오래된 형이 100년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백동 장석이다.

일반적으로 청동, 백동, 황동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색을 띠지는 않는다. 만든 사람에 따라 합금의 비율을 달리해서 각 자의 고유한 색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장인들마다 선호하는 색깔이 다르므로 만들어

8) 한 어휘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형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낸 장석을 보고 자신의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무쇠 장석은 힘을 많이 받는 반닫이와 책장 등에서 크고 두껍게 쓰였으며, 소박한 질감으로 사랑방 가구와 주방 가구에도 널리 이용되었다. 주석 장석은 색깔이 발고 화사하여 여성용 가구에 애용되었으며 백동 장석은 희고 깨끗하여 단정한 멋을 내는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2. 제작도구 관련 어휘[9)]

두석의 제작도구에는 불우리, 화덕, 풀무, 골판, 골판 상자, 집게, 쇠판, 망치, 모루, 작두, 통박, 차장, 깎칼, 차장받침쇠, 꺽쇠, 씨앗이, 함박굴림통, 함박굴림정, 정, 줄, 본, 그림쇠, 그음쇠, 땜숟갈, 붕사, 붕사그릇, 활비비, 갈기, 광쇠, 도가니, 오가리 등이 있다.

1) 불우리, 화덕

불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어휘인데 홍정실(1993)에 따르면 '석비레를 섞어 진흙을 쌓아올려 만든 용융[10)]용 화덕'으로 송탄을 넣어 가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보자는 불가마 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불가마 위에 둥글게 하여 열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열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불우리'라 하고 있다. 화덕 위에 둥글게 싸여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의미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어휘형을 보면 '불우리'는 '불+우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고 '우리'는 '울타리'의 경상도 방언형으로, 불우리는 '불울타리'를 뜻하는 단어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화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불가마 위의

9) 실제 연구에서는 어휘를 범주별로 분류화하여 조사하였으나 논문 작성에서는 계층화된 어휘 관계를 모두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조사 어휘를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 나열식으로 정리를 하였다. 이는 차후에 Protege-5.3.0-win 프로그램 활용한 결과물을 제시하여, 어휘의 나열식 전개보다는 입체적, 계층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0) 녹아서 섞이는 일.(표준국어대사전)

지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11] 화덕은 숯불을 피워 놓고 쓰게 만든 큰 화로로 노천 화덕, 실내 화덕, 둘러싸인 화덕, 지붕이 없는 화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두석 작업 중 철판을 늘리거나 재료를 때울 때 쓴다. 풀무로 바람을 일으켜 불 조절을 하면서 사용한다.

2) 풀무, 골풀무/ 발풀무, 손풀무/궤풀무

풀무는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재질과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인 형태로 '골풀무'는 땅바닥에 장방형(長方形)의 골을 파서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고 그 위에 골에 꼭 맞는 널빤지를 걸쳐 놓은 것으로, 널빤지의 두 끝을 두 발로 번갈아 가며 디뎌서 바람을 일으킨다. 다른 말로 '발풀무'라 하기도 한다. '손풀무'는 궤 안에 장치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밀었다 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둥근 통 속에 장치하여 손잡이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를 이르는 말이다. 이 손풀무를 '궤풀무'라고도 하는데 '궤+ 풀무'의 합성어로 모양이 궤짝처럼 생겼다고 해서 궤풀무이다. 풀무를 만든 재료에 따라 '쇠풀무', '나일론풀무', '나무풀무' 등도 있다.

3) 골판, 골판상자

골판은 원재료를 녹여 섞은 쇳물을 붓는 철재 거푸집을 말한다. 거푸집은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붓도록 되어 있는 틀인데 쇳물을 녹여 골판에 부어서 일정한 쇳가락의 형태로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골판은 '골질(骨質)의 판', '성게의 몸 표면에 석회질의 작은 판이 모여서 된 외골격'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골판 상자는 골판을 기대어 세워 놓을 수 있게 만든 상자로 바닥에는

11) 홍정실의 책에서는 통영의 김덕용 씨(중요무형문화재 64호 두석장)를 제보자로 하고 있고, 본 조사는 진주의 정한열 씨(경남무형문화재)를 제보자로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사용 어휘의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흙을 깔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철판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사다 쓰기 때문에 골판이나 골판 상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집게, 물림집게, 불집게, 굽은집게/ 후아진집게, 옥집게

집게는 물건을 집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로 두석일에 쓰이는 집게에는 물림집게, 불집게, 굽은 집게, 옥집게 등이 있다. 물림집게는 집게의 종류로 골판을 고정하는 집게이다. '물리-+ㅁ+집게'로 구성된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물리게 만든 집게이다. 골판의 위, 아래를 고정하여 쇳물을 골판에 부을 때 골판 사이가 벌어져 쇳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판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은 아래, 위로 하는데 중간에 하나 더 물리는 경우도 있다. 불집게는 '불+집게'의 합성어로 불덩이, 숯불, 석탄 덩이 따위를 집거나 등잔이나 촛불의 불똥을 집는 데 쓰는 집게이다. 두석 일에서도 쇠판을 잡아 화덕에 넣어 두거나 달구어진 쇠판을 잡고 면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굽은집게는 모양을 본떠 만든 말로 집게의 모양이 굽어 있다고 해서 굽은 집게이다. 집게가 쪽 바르지 않고 45도쯤 각도가 난 집게이다. 이 집게는 도가니를 잡을 때 사용한다. 굽은집게를 다른 말로 '후아진집게'라고 하는데 '후아진'은 '휘어진'의 방언형이다. 따라서 '휜집게'라는 의미이다. 옥집게는 집게 이빨이 둥글게 굽은 집게를 말하는데 집게의 이빨을 맞물리면 원형이 된다. 옥집게를 방울집게라 하기도 한다.

<사진 3> 불집게-1

<사진 4> 불집게-2

5) 쇠판

쇠판은 '쇠+판'의 합성어로 쇠로 만든 판이라는 말이다. 쇠판은 장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로 원자재를 녹여 만든 판인데 이것을 만드는 장석에 따라 작두로 적당하게 잘라 사용한다. 그리고 장석의 자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골판처럼 녹인 쇳물을 부을 수 있게 만든 넓은 쇠로 만든 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쇳물이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쇠판의 가를 접어 올려 사용하였다.

6) 망치, 타주망치, 딱달망치, 중망치, 목망치

망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 모양은 마치와 비슷하나 훨씬 크고 무거우며 자루도 길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제보자는 쇠로 된 것 이외에 무엇을 두드리는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망치라고 하였다. 두석 일에 사용하는 망치는 타주망치, 딱달망치, 중망치, 목망치 등이 있다.

타주망치는 금속덩이를 두드려 넓게 평평하게 펼 때 사용하는 망치로 제보자는 '타주'는 '큰 것을 치다'는 말로 타주망치는 여럿이 하는 망치로 한 사람이 양손을 들어야 되는 무게의 망치라고 하였다. 여럿이 함께 작업을 할 때는 1번 타주, 2번 타주, 3번 타주라고 해서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고 한다. 딱달망치는 장석 표면을 평평하게 수평으로 만드는 망치이다. 장석을 만든 다음에 못구멍을 뚫고 난 뒤에 장석의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중망치는 장석 가의 모양을 따 내는 망치로 정 위에 쓰는 망치이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힘에 맞춰 적당한 크기의 망치를 사용한다. 장석 작업에는 딱달망치와 중망치를 많이 쓴다. 목망치는 나무로 만든 망치로 장석을 바르게 펼 때 쓰는 망치이다. 장석이 많이 휘어지면 대충 펴는 망치인데 나무 둥치 위에 대고 치는 망치이다.

7) 모루/ 모룻돌/ 몰띠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로 대부분의 장석 작업은 모루 위에서 이루어진다. 형태에 따라서 사각모루, 둥근모루, 팔각모루 등으로 나뉘고 그밖에 기능에 따라 철까치모루, 타주모루, 딱달모루 등이 있다. 모루는 '모룻돌', '몰띠'로도 사용하는데 모루의 방언형이다. 장석 작업이 대부분은 이 모루 위에서 이루어진다.

(1) 타주모루, 딱달모루/ 딱달모룻돌, 철까치모루/ 철까치모룻돌/ 철까지몰띠

타주모루는 위의 타주망치와 함께 쇳물을 녹여 만든 철판을 얇게 펼 때 사용하는 모루이다. 딱달모루는 딱달망치를 사용할 때 함께 쓰는 모루인데 나중에 장석을 만든 후 장석의 면을 평평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모루이다. 이는 '딱달모룻돌'이라고도 한다. 모루에 종류에는 재미있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철까치모루'이다. 철까치모루는 폐 기차 철로를 끊어서 만든 모루이다. 생긴 모양도 기차 철로의 단면이다. 이 철까치모루는 장석 중 경첩 가운데 철사 구멍이 들어가는 동그란 자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루이다. 철까치모루는 '철까치모룻돌', '철까치몰띠'로도 사용된다. '철까치'는 철로 된 까치인데 '까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개비'란 말로 가늘고 짤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2) 사각모루/ 사각모룻돌, 둥근모루/ 둥근모룻돌, 팔각모루/ 팔각모룻돌

모루의 종류에는 형태에 따라서 사각모루, 둥근모루, 팔각모루 등이 있다. 형태를 그대로 따온 말인데 사각모루는 사각형의 철재받침대, 둥근모루는 둥근모양, 팔각모루는 팔각형의 모루이다. 사각모루, 둥근모루, 팔각모루는 '모룻돌'이라는 말과 합성되어 사각모룻돌, 둥근모룻돌, 팔각모룻돌이라고도 불린다.

<사진 5> 철까치모루

<사진 6> 팔각모루

8) 작두/ 삭두, 손작두/ 손삭두

작두는 마소의 먹이를 써는 연장으로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토막 위에 긴 칼날을 달고 그 사이에 짚이나 풀 따위를 넣어 발로 디뎌 가며 썰게 되어 있다. 혹은 약작두를 이르는 말인데 두석 일에서는 금속판, 쇠판을 자를 때 쓰는 절단용 칼로 '삭두'라고 하기도 한다. 장석 작두에는 큰 작두도 있고 작은 작두도 있다. 큰 것은 큰 쇠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작은 것은 평상 시 장석 작업 할 때 많이 쓰는 작두이다. 작은 작두를 '손작두, 손삭두'라고도 한다.

9) 통박/ 톰베이

통박은 나무로 된 작업대로 통나무를 절단해 만든 것이다. 이 통박 위에서 줄질이나 갈길질, 타출 작업 등이 행해지는데 보통 소나무를 많이 사용한다. 이 통박을 진주에서는 '톰배이'라는 방언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아래에 놓인 잘린 통나무를 말한다.

10) 차장/ 공판, 깎칼차장/ 깍칼공판, 줄임차장, 연마차장

차장은 두석 일을 할 때 줄질이나 갈길질을 하는 나무 받침대로 나무 길이에 따라서 깍칼차장, 줄임차장, 연마차장으로 부르는데 실재로는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차장이라는 말 대신에 제보자는 '공

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차장은 길이나 용도에 따라 깎칼차장, 줄임차장, 연마차장으로 구분하는데 보통은 50~60cm 정도의 길이에, 8~10cm 정도의 넓이로 통박 위에 못질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그 위에서 작업을 하였다.

깍칼차장은 '깍칼공판'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길이가 60~70cm 정도의 나무 받침대이다. 금속판의 표면을 깎을 때 사용한다. 줄임차장은 길이가 30cm 정도의 나무받침으로 줄질, 갈길질 등의 마무리 작업에 사용된다. 줄임차장을 다르게 '줄임공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마차장은 길이가 50~60cm 정도의 나무받침대로 줄질, 갈길질 등의 작업에 쓰인다. 이는 '연마공판'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연마차장 정도의 크기를 받침대로 사용한다.

<사진 7> 통박과 통박 위 차장

<사진 8> 통박 위

11) 꺽쇠

꺽쇠는 ㄷ자로 꺽어진 쇠로 차장(공판)을 받침대에 고정시킬 때 끼웠다 뺐다하는 데 필요한 고정용 도구이다. 이렇게 꺽쇠를 사용하여 고정하기도 하고, 차장에다 그냥 못을 박아 사용하기도 한다.

12) 차장받침쇠, 씨앗이

차장을 꺽쇠에 끼울 때 쓰는 도구로 차장받침쇠는 차장 위쪽에 고정

시키고, 씨앗이는 꺽쇠 아래에 고정시켜 사용한다.

13) 함박굴림통/ 함박골판/ 함박밑판

함박굴림통은 둥근 모양의 굴림통으로 둥근 홈이 파여 그 위에다 철판을 대고 치면 둥근 모양이 찍혀 나온다. 여기서 '함박'이라는 말은 '함박꽃', '함지박'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함박만하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함박굴림통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크게 굴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굴림정으로 굴릴 때 사용되는 굴림통을 말한다. 함박굴림통은 둥근 모양을 굴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둥근 모양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데 제보자는 함박굴림통은 큰 것을 굴릴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반원 모양이 튀어나온 배꼽자물쇠를 만들려면 평면인 철판을 함박굴림통 위에 굴려서 튀어나오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함박굴림통은 함박골판, 함박밑판이라고도 불렀다.

<사진 9> 함박굴림통-1

<사진 10> 함박굴림통-2

14) 정

정은'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쪼아서 다듬는, 쇠로 만든 연장'으로 원뿔형이나 사각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그리고 북한어로 쇠줄이나 쇠판 따위를 끊는 데 쓰는 굳은 날이 있는 도구라고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재로 조사에서는 북한어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장석 작

업에서 정은 장석의 장석의 형태나, 문양을 만들 때 쓰는 도구로 문양과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정이 있다. 문양을 새기는 정은 문양정이라고 하는데 문양정에는 꽃정, 삼자정, 갈매기정, 이자정, 반원정 등이 있고, 기능에 따라 날정, 홈정, 공금정, 쪼이정, 빠꼼정, 광두정 등이 있다.

(1) 문양정, 꽃정, 삼자정, 갈매기정, 이자정, 반원정

문양정은 문양을 찍어 내기 위한 정인데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정인 모두 문양정이고, 그 종류는 다양하다. 문양정 중 꽃 모양을 본떠 만든 정을 꽃정이라고 하는데 꽃정에는 매화꽃정, 목단꽃정, 국화꽃정 등이 있다.

삼자(3) 문양을 조각할 대 사용하는 정이 삼자정이고, 이 삼자가 조금 비뚤어져서 갈매기 날아가는 모양처럼 생긴 정이 갈매기정이다. 이자정은 모양이 이자처럼 생긴 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양정이 있다고 한다.

(2) 날정

날정은 날이 넓적하게 생긴 정이다. 일자로 생긴 날로 쇠판을 자를 때 주로 쓰는 정으로 조각을 놓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날정도 날의 길이에 따라 약 2mm 정도의 크기에서 20cm 까지 다양하게 있다.

(3) 홈정

홈정은 홈을 파는데 사용하는 정이다. 장석에 오목하고 길게 팬 줄을 새길 때 사용한다.

(4) 공금정/ 쪼지정/ 쪼이

공금정은 조각을 놓을 때 장석 가의 빈 공간을 채울 때 사용하는 정을 말하는데 공금정이라고도 하고 '쪼이정', '쪼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금정이라는 말은 '공그르다'와 '정'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공그르다'는 북한어, 옛말로 표기되어 있고 그 뜻도 '헝겊의 시접을 접어 맞대어 바늘을 양쪽의 접힌 시접 속

으로 번갈아 넣어 가며 실 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떠서 꿰매다.'고 하고 있다. '쪼이정'이라는 말은 '쪼다'와 '정'이 합쳐진 말로 볼 수 있다.

(5) 굴림정, 함박굴림정, 박쥐형몸통굴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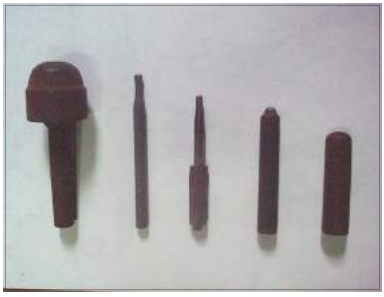
굴림정은 장석을 여러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굴릴 때 사용하는 정이다. 함박굴림정도 굴림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굴리다'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정에 수록된 의미와 다르게 표면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장석 표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질로 대부분 모양을 둥글게 굴리는 것을 굴림정이라 한다.

함박굴림정은 함박굴림통에 대고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공이[12]로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의 함박굴림정이 있다. 박쥐형몸통굴림정은 박쥐형 장석의 몸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긴 타원형 모양의 굴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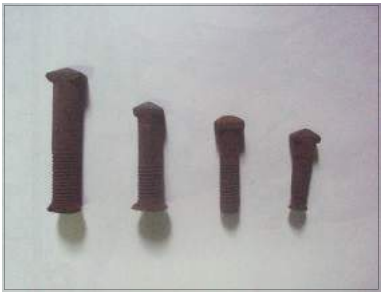
(6) 빠꼼정

장석의 못구멍을 뚫는 정으로 장석을 만들고 나서 목가구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못 구멍이 필요한데 이 못 구멍을 뚫기 위한 정이 빠꼼정이다. 경상도에는 표준어 '빠금'에 대응하는 말로 '빠꼼'을 쓰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빠꼼'을 북한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 뜻은 '작은 틈이나 구멍이 깊고 매우 또렷하게 벌어져 있는 모양'이다. 못 구멍이 만들어진 모양이 빠끔하다고 해서 방언형인 '빠꼼'에 '정'을 붙여 만든 합성어이다.

12) 절구나 방아확에 든 물건을 찧거나 빻는 기구. 메공이, 돌공이, 쇠공이, 절굿공이, 방앗공이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사진 11> 굴림정



<사진 12> 광목정

(7) 광목정

광목정은 장석의 작은 부분을 굴리는 정으로 정 끝이 사각뿔처럼 생긴 정이다. 정질을 하면 피라미드처럼 생긴 홈이 생긴다.

15) 줄

줄은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에 쓰는, 강철로 만든 연장으로 작두로 자른 부위나 정으로 따낸 부위를 매끄럽게 다듬는 도구이다. 줄의 형태에 따라 세모줄, 네모줄, 반원줄, 원줄, 동줄, 둥줄 등이 있고, 줄의 표면 세기에 따라 센줄, 중줄, 곤줄, 보드라운줄 등이 있다.

(1) 세모줄, 네모줄, 반원줄, 원줄

줄을 세워 끝에 보이는 단면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각형이 되어 보이면 네모줄, 반원모양이면 반원줄, 원모양이면 원줄, 동줄, 둥줄이라고 하였다.

(2) 센줄, 중줄, 곤줄/ 보드라운 줄

줄 표면의 세기에 따라 구분하는 이름으로 '센줄'은 줄 표면이 제인 거친 줄이고, '중줄'은 중간 정도 되는 줄, '곤줄'은 표면이 제일 가는 줄로 '보드라운 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6) 본

<사진 13> 본 세트

<사진 14> 반닫이 도안

장석의 모양을 만들 때 철판에 위에 대고 그리는 도안을 '본'이라고 한다. 본은 좌우 대칭되는 모양이나 동일한 모양을 쓰는데 장석 작업에서 본은 예전에는 함석판이나 주석판을 사용하였고 요즘은 플라스틱 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은 작업을 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한다. 하나의 가구에 사용하는 장석은 세트로 묶어두어 작업의 효율을 높인다.

17) 그림쇠

송곳처럼 생겨서 무엇을 그릴 수 있게 만든 쇠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지름이나 선의 거리를 재는 기구'라고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는 그림쇠를 철판 표면에 자국을 남길 수 있는 쇠라고 말하였다.

18) 그음쇠

그음쇠는 ㄱ자처럼 생겨서 줄을 그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자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사진 15> 그음쇠

<사진 16> 깎칼

19) 땜숟갈

장석 때우는 일을 할 때 중화제를 넣어야 잘 때워지는데 중화제인 붕사를 뜨는 숟가락을 땜숟갈이라 한다.

20) 붕사/ 풍사, 붕사그릇

붕사는 장석 작업을 할 때 땜 작업을 하는 데 중화제로 쓴다. 이 붕사를 달리 '풍사'로 부르기도 한다. 붕사그릇은 장석의 땜질 작업에서 중화제로 쓰이는 붕사를 담는 그릇을 말한다.

21) 깎칼

깎칼은 원자재인 쇠판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장석 작업 중 '깎칼질'에 쓴다. 깍칼질은 '갈길질', '까끄질'이라고 하는데 줄 작업을 하고 나서 남는 줄자국인 줄터를 없애는 작업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깎칼질하다'라고 하거나 방언형인 '까끄질하다'라고 표현한다.

22) 활비비

활비비는 철판에 구멍을 뚫는 도구로 활처럼 생긴 도구를 가지고 비빈다고 해서 이름이 '활비비'이다. 철판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화살촉처

럼 생긴 것을 활에 끼워 활을 돌리면 철판에 구멍이 뚫리는데 손으로 구멍을 뚫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23) 광쇠

광쇠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활비비를 할 때 원자재를 고정시키는 도구이기도 하고, 쇠붙이에 광을 낼 때 쓰는 도구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24) 도가니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으로 단단한 흙이나 흑연 따위로 우묵하게 만든다. 장석의 원자재를 넣고 끓일 수 있게 만든 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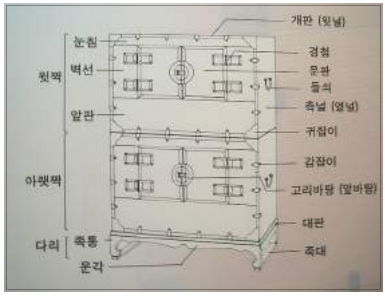
25) 오가리

다 만든 장석은 표면을 닥아 광택을 내 미적 감각을 높이는데 장석 표면을 닦을 때 장독 깨진 것을 갈아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어 짚이나 천으로 닦았는데 광택이 오래 간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가리는 항아리의 전남 방언이라 하고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서도 쓰는 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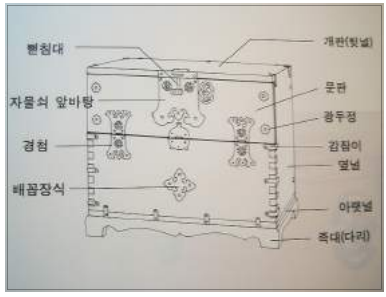
3. 장석 종류 관련 어휘

목가구에 부착되는 장석의 종류는 그 쓰임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장석은 크게 기능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적인 장석에는 경첩, 들쇠, 앞바탕, 광두정, 자물쇠 등이 있고, 장식적인 것에는 문자장석과 문양장석이 있다. 초기의 장석은 기능적인 것이 중심이었으나 나중에는 장식적인 장석이 발달되면서 목가구를 한층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다음은 반닫이와 이층농에 부착된 부분 명칭과 부착된 장석의 명칭이다.



<그림 1> 이층농의 장석 명칭



<그림 2> 반닫이의 장석 명칭

1) 경첩/ 겹첩/ 정첩

경첩은 문을 열고 닫기 위해 만든 장석이다. 대칭이 되는 두 개의 금속판 기둥축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홍정실, 1993) 경첩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장석이므로 목가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석이라 할 수 있다. 경첩은 암, 수 두 개의 쇠붙이로 구성되어 서로 끼워 맞춰 여닫게 할 수 있는 금구, 즉 돌쩌귀에서 발전된 것으로 처음에는 칡끈 따위로 몸체와 문판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권유리, 2006) 경첩은 철판 두 개가 겹쳐진다고 해서 '겹첩'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는 방언형인 '정첩'이 사용되기도 한다.

(1) 평경첩/ 평정첩/ 노출형 경첩

경첩 중 노출형 경첩은 가운데 기둥쇠를 중심으로 경첩의 철판이 목가구의 밖으로 드러난 경첩을 말한다. 경첩의 전체 모양이 밖으로 드러나므로 문을 여닫는 기능적인 측면과 아름답게 하는 장식적인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첩이라 할 수 있다. 이 노출형 경첩을 다른 말로 '평경첩'이라고도 하고 경남지역에서는 방언형인 '평정첩'이 사용되고 있다.

(2) 숨은 경첩/ 숨은 정첩

경첩의 철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운데 기둥쇠 부분만 보이는

경첩을 말한다. 그래서 숨은 경첩은 밖에서 보면 한일(一)자만 밖에서 보인다. 숨은 경첩을 부착한 가구는 화려한 느낌보다는 목재의 은은함을 돋보이게 해 소박한 느낌을 준다. 숨은 경첩을 경남지역에서는 '숨은 정첩'이라고도 한다.

(3) 경첩의 문양 관련 어휘

경첩에 주로 사용되는 문양은 원형, 동그레형, 화형, 호리병형, 불로초형, 약과형, 제비초리형, 매미형, 실패형, 고춧잎형, 허리띠형, 인동형, 나비형, 여의두형, 대문형, 초형 등이 있다.

<사진 17> 허리띠형 경첩

<사진 18> 인동형 경첩

2) 코말이

경첩이 맞물려 가운데 철사를 넣는 부분을 코말이라 부른다. 경첩이 목가구에 부착된 경우에는 가운데 기둥쇠 부분이 보인다.

3) 앞바탕/ 앞판/ 면판/ 앞바디

앞바탕은 목가구의 여닫이문에서 자물쇠가 붙어 있는 밑바탕이 되는 금속판을 이르는 말로 배목 고리, 자물쇠 장식을 할 때 이들이 가구에 견고하게 붙을 수 있도록 가구판에 부착하는 얇고 판판한 쇠붙이다.[13]

13) 진주신문사(1995)에서 태정 민속박물관장인 김창문의 일생을 다룬 글에서 김창문의

또한 들쇠나 자물통이 가구 몸판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가구 전면과 중심부에 앞바탕 자체의 문양과 형태에 따라 가구의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도하다. 앞바탕은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자물쇠가 닿는 목가구의 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앞바탕을 '앞판', '면판', '앞바디'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앞바탕은 초기에는 단순히 기능만을 생각하여 만든 것이고, 후기로 갈수록 많은 무늬, 화려한 무늬를 투각하거나 새긴 앞바탕이 만들어졌다.

앞바탕의 문양으로는 둥근형, 약과형, 나비형, 팔각형, 실패형, 불로초형, 제비초리형 등이 있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글자를 투각하거나 여러 상징적인 문양을 새겨 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냈다. 앞바탕의 문양은 달을 상징하는 원형의 모양에서 사각형 모양으로 변한 다음, 육각형, 팔각형으로 각의 모양이 완만하게 변하였다. 이 각을 봉우리(峰)라고 불렀는데 육각형, 팔각형 앞바탕을 육봉(六峰), 팔봉(八峰)이라고 하였다.

<사진 19> 나비문양 앞바탕-1

<사진 20> 나비문양 앞바탕-2

4) 들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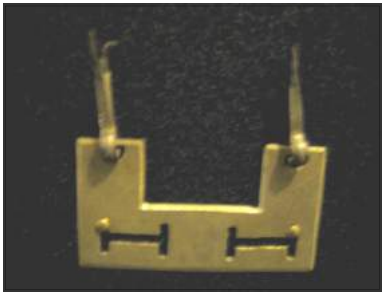
서랍이나 문짝에 다는 반달 모양의 손잡이를 '들쇠'라고 한다. 가구의 윗판이나 좌우 옆에 부착해 들어 올리거나 잡아당기기 편하게 만든 손

구술발화의 내용을 가져와 정리하였다.

잡이를 이르는 말이다. '들쇠'라는 이름도 '들다'라는 말과 '쇠'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목가구에 들쇠는 보통 두 개가 달리지만 가구의 크기에 따라 6개, 8개 박히는 물건도 있다. 반닫이의 경우, 문판의 좌측, 우측 상단에 대칭으로 달려서 문판을 쉽게 열도록 돕는 앞 들쇠와 가구를 들어 올리기 쉬운 위치에 달려 있는 옆면에 부착한 옆 들쇠가 있다. 또한 앞널 가운데 부착된 들쇠는 문판이 열릴 때 앞바탕의 장석이 가구의 몸체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달아 놓은 것이다. 들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배목이 하나인 형과 배목이 둘인 형이 있는데 배목이 하나인 형보다 배목이 둘인 형을 가구에 붙였을 때 무거운 것도 쉽게 들 수 있고 당기기도 편하다.

들쇠에 사용되는 문양은 동물문양으로 만들거나 꽃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기도 하며 들쇠 받침대의 모양을 국화문이나 박쥐문 등을 사용하여 장식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약과형, 새형, 물고기형, ㄷ자형, 꽃무늬형 등이 있다. 문양 중에는 붕어형 들쇠가 많이 나타난다. 붕어 두 마리가 꼬리를 교차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금슬이 좋음을 나타내고 있다. 붕어 두 마리는 부부금슬과 함께 교미(交尾)로 인한 다산(多産)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산은 다남(多男)과 통하는 선조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자손의 번창을 위해 다남을 최고의 복 중 하나로 여겼다. 따라서 생활 속에 쓰는 가구에도 그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사진 21> 배목 1개형 들쇠



<사진 22> 배목 2개형 들쇠

5) 배목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배목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의 의미이다. 여기서 배목은 밖으로 드러난 형태를 말하는데 장석에서 배목은 '들쇠를 가구에 부착할 때 가구에 박히는 부분'으로 들쇠를 부착하고 나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망치로 가구에 박아서 들쇠를 고정 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6) 감잡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감잡이는 '두 부재를 감아 목재의 이음을 보강하는 'ㄷ' 자 모양의 쇳조각'으로, 목가구에서도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보강을 위해서 부착하는 장석을 감잡이라 한다. 이름 그대로 '감아서 잡아준다'고 해서 감잡이다. 목가구의 가장 윗부분을 천판이라고 하는데 천판과 가구의 기둥이 되는 부분, 그리고 기둥과 기둥 부분, 몸통과 몸통 등 가구의 이음새 부분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감잡이를 부착했고 이는 다양한 문양을 넣어 장식적인 기능도 하였다.

(1) 개판감잡이, 허릿대감잡이, 족통감잡이/ 발감잡이/ 발, 몸통감잡이

감잡이는 부착되는 부위별로 개판감잡이, 허릿대감잡이, 족통감잡이, 몸통감잡이로 나뉠 수 있다. 개판감잡이는 가구의 개판(옷장이나 책장 따위의 맨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하여 댄 나무 판)에 대는 천판의 보강제이고, 몸통감잡이는 가구의 몸통 부분을 감아 잡는 감잡이다. 허릿대감잡이는 가구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 감잡이, 족통감잡이는 다리부분을 감싸는 감잡이다. 족통감잡이를 '발감잡이'라 부르기도 하고 더 간단히 '발'이라 하기도 한다.

(2) 새발감잡이/ T자 감잡이/ ㅜ자 감잡이

감잡이의 종류로 감잡이 모양이 새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발감잡이'

이다. 이 새발감잡이를 경남지역에서는 'T자 감잡이', 혹은 '丁자 감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작업 할 때는 감잡이라는 말도 빼서 T자, 丁자라고 줄여 부른다.

<사진 23> 새발감잡이-1

<사진 24> 가구에 부착된 감잡이-2

(3) 둥근감잡이, 상두감잡이, 약과형감잡이, 기하형감잡이, 당포감잡이, 제비초리형감잡이, 국수형감잡이

감잡이의 모양으로는 둥근감잡이, 상두감잡이, 약과형감잡이, 기하형감잡이, 당포감잡이, 제비초리형감잡이, 국수형감잡이 등이 있다. 이 중 국수형 감잡이는 감잡이 모양이 네모형에서 옆으로 더 늘려 국수형으로 만든 감잡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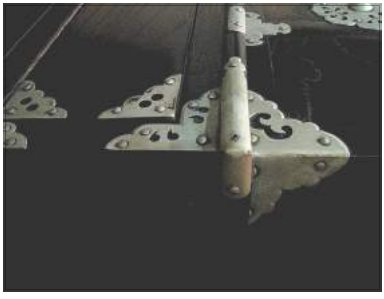
7) 귀잡이/ 귀장식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로재와 세로재가 직각으로 만나 짜이게 되는 귀에 빗대는 부재(部材). 각도가 변형되는 것을 막는다.'고 '귀잡이'를 정의하고 있다. '귀잡이'는 목가구의 모서리 부분, 귀부분에 붙이는 장석으로 문짝 정면 네 귀퉁이에 붙이는 장석이다. 네 귀퉁이에 붙여 목가구가 틀어지는 것도 막고, 장식적인 기능을 더 한 장석이다. 귀잡이는 또한 가구의 귀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한다고 해서 '귀장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귀장식또한 감잡이처럼 가구의 귀부분을 구조적으로 잡아주고 외부

의 물체기 가구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구를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한다. 감잡이가 가구를 입체적으로 양면을 잡아주는데 비해 귀잡이는 평면적으로 귀부분만을 잡아주고 있다.

(1) 귀잡이의 문양

귀잡이 문양에는 약과형귀잡이, 둥근형귀잡이, 달귀잡이, 불로초귀잡이, 완자귀잡이, 운문귀잡이, 수팔련귀잡이, 반원귀잡이, 연밥귀잡이, 박천반닫이귀잡이, 당초문귀잡이 등이 있다.



<사진 25> 가구에 부착된 귀잡이

<사진 26> 달귀잡이

(2) 통귀쌈/ 통귀/ 귀쌈/ 고깔장식/ 귀싸개장식/ 문귀잡이/ 문짝귀

귀잡이 중에서 독특한 형이 있는데 '통귀쌈'은 이름 그대로 가구의 모서리 귀 부분을 통째로 쌌다고 해서 '통귀쌈'이다. 통귀쌈은 줄여 '통귀', 혹은 '귀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귀쌈은 생김새 때문에 '고깔장식', '귀싸개장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통귀쌈은 문의 네 귀퉁이에 붙는다고 해서 '문귀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짝귀'라고 하기도 한다.

8) 뻗침대/ 질목, 몽땅뻗침대, 선뻗침대

뻗침대는 함이나 궤에서, 자물쇠를 걸 수 있도록 된 기름한 쇠 장식으로 끝이 몸체의 두 배목 사이에 끼워진다. 뚜껑의 위판과 몸판을 연결해

들쇠 기능과 함께 자물쇠를 끼울 수 있는 역할도 한다. 뻗침대를 경남지역에서는 '질목'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질목'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뻗침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뻗침대의 종류에는 몽땅뻗침대, 선뻗침대, 태극형뻗침대, 꺾쇠형뻗침대 등이 있는데 '몽땅뻗침대'는 뻗침대의 길이가 몽땅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뻗침대는 선처럼 길이가 긴 뻗침대로 몽당뻗침대와 대조되는 뻗침대이다. 태극형뻗침대는 선뻗침대 밑에 태극문양이 달려 있다.

<사진 27> 뻗침대

<사진 28> 자물쇠 위에 달린 뻗침대

9) 광두정/ 강목

광두정은 대가리를 둥글넓적하게 만들어 장식 겸용으로 쓰는 못을 말한다. 광두정은 가구를 제작한 후 생기는 여유 공간을 잘 구성함으로써 가구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기능과 함께 가구를 제작하면서 실수로 생긴 가구 표면의 흠집을 막고, 또 가구 재료로 쓰일 나무가 꼭 필요한 부분에 흠이 있거나 벌레가 파먹었을 경우 그 곳을 막기 위해 부착한 장석이다. 광두정은 강목이라고도 하며, 구조적으로는 목재의 있는 흠집이나 못자국을 감추고 미적으로는 허전한 공간을 일정한 방향과 크기로 연속성 있게 좌우, 상하로 대칭시켜 균형미 있게 장식의 조화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진주신문사, 1995) 따라서 광두정은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갖춘 장석이다. 광두정은 아주 고급도 아니고 하급도 아

닌 중산층이 쓰던 가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또한 광두정은 몸판에 부착되는 장식 중 유일하게 입체감을 주는 금속 장식이다. 광두정의 모양은 아주 다양한데 박쥐형, 나비형, 국화형, 구름형, 원형 등이다.

10) 꾸밈 장석, 문자 장석과 동물 모양 장석, 식물 모양 장석

목가구의 마름질이 끝나고 기능적으로 필요한 장석을 부착하고 난 뒤 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꾸밈 장석을 낳았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므로 장식용 장석이라 한다. 장식용 장석은 크게 문양에 따라 문자 장석과 동, 식물 모양 장석으로 나룰 수 있다.

(1) 문자 장석

문자장석에는 수복강녕(壽福康寧), 부귀다남(富貴多男), 백복자래(百福自來), 오군만년(吾君萬年) 등이 주로 쓰여 삶에서 바라는 바를 담은 글을 문양으로 만들어 가구에 부착했다.

(2) 동물 장석

장석에 나타나는 동물들은 신화나 상상, 그리고 실존하는 동물로서 기복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는 가정의 안녕과 평온함, 그리고 장수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동물 모양 장석에는 대표적으로 십장생이 있다. 십장생 중에서도 학, 사슴, 거북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십장생 외에도 물고기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물고기가 자물쇠 장석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습성 때문에 '재산과 복을 지켜 달라'는 의미이며, 기타 장식으로 사용될 때는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는 생물이므로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고기 중에서도 잉어는 출세, 성공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잉어와 연관된 등용문(登龍門)[14]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반닫이에 가장 많이 사용

14) 용문(龍門)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되는 문양은 박쥐인데 박쥐는 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부착되며 밤에는 재산과 복을 지켜주는 수호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비는 남녀의 화합과 자녀의 번창을 의미한다. 매미문양은 나비와 마찬가지로 여성 장식품에 많이 쓰이며 고결과 장수를 상징한다.

(3) 식물 장석

전통 문양 가운데 식물의 문양으로 흔히 보이는 것은 국화, 연화, 모란, 매화, 난초, 대나무, 소나무, 불로초 등으로 이 중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는 사군자로 불리는 식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국화는 높은 절개, 고결함을 상징하며, 불로초는 불멸의 생명을 주는 식물이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드러나며 연화는 불교를 표상하며 깨달음과 순결, 청결을 의미한다.

11) 자물쇠/ 쇠통/ 소통/ 쇠금/ 쇠약

'자물쇠'는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로 장, 농, 곳간, 대문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사용하였다. 자물쇠는 '쇠로된 통'이라는 의미로 '쇠통'이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소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물쇠'와 '통'이 합쳐진 말로 '자물통'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물쇠를 다르게 부르는 말에는 자물통, 쇠통, 소통, 쇠금, 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1) 구성요소: 자물통, 잠글쇠, 열쇠/ 개금/ 건/ 쇳대, 돌쩍

자물쇠는 자물통, 잠글쇠, 열쇠로 구성되는데 자물통은 자물쇠의 몸통을 말하며, 잠글쇠는 자물통에 끼워서 잠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열쇠는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다. 열쇠를 다르게 부르

관문을 이르는 말. 잉어가 중국 황허(黃河) 강 상류의 급류를 이룬 곳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표준국어대사전)

는 말로 한자어 '개금(蓋金)', '건(鍵)'과 순우리말로 '쇳대'가 있다. 쇳대(쇠+ 대)는 쇠로 만든 대라는 말이다. 잠글쇠는 자물통에 끼워서 잠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열쇠 부속품 중 '돌쩍'이 잠기게 하는 부속품이다.

(2) 붙박이형 자물쇠, 은혈자물쇠/ 속자물쇠, 선자물쇠/ 바각/ 쥐꼬리자물쇠, 쌍다리미 자물쇠

붙박이형 자물쇠는 자물쇠가 가구에 붙어 있는 자물쇠로 움직이지 않는 형이다. 이 붙박이형 자물쇠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은혈자물쇠는 붙박이형 자물쇠의 종류로 자물쇠 본체가 없이 앞바탕에서 구멍만 보이도록 만든 자물쇠이다. 자물쇠 장치가 앞으로 가려진 형태로 볼 수 있다. 은혈자물쇠를 자물쇠가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속자물쇠'라고 많이 부른다.

선자물쇠는 자물쇠의 종류 중 앞바탕이 좁고 긴 사각기둥 형태를 가진 자물쇠를 말한다. 자물쇠에 긴 막대를 꽂아 열거나 잠그는 형태를 가진다. 선자물쇠를 다른 말로 '비각'이라고 하거나 '쥐꼬리 자물쇠'라 하기도 한다. 선자물쇠가 쥐꼬리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해서 '쥐꼬리 자물쇠'라 하는 것이다. 비각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 선 자물쇠를 두 개 달아 놓은 자물쇠도 있는데 경남 지역 방언형으로 '쌍다리미 자물쇠'라 한다.

<사진 29> 선 자물쇠1

<사진 30> 선 자물쇠2

(3) 두껍닫이 자물쇠/ 북통 자물쇠

자물통 속에 줏대와 속청이 장치되어 있으며 밑면 쪽에 구멍이 있는 곳으로 열쇠를 밀어 넣어 열리게 되는 구조를 가진 자물쇠이다.(홍정실, 1993) 두껍닫이 자물쇠를 '북통 자물쇠'라고 하기도 한다.

(4) 꺾쇠형 자물쇠/ 거북형 자물쇠/ 딸깍 자물쇠

목가구의 위판과 앞부분이 걸쳐진 자물쇠로 자물쇠가 두 면에 걸쳐져서 'ㄱ'자처럼 보인다. 주로 'ㄱ'자 꺾쇠형 뻔침대 밑에 거북을 달아 거북을 위로 밀거나, 아래로 내림으로써 자물쇠를 열고 닫았다. 그래서 꺾쇠형 자물쇠를 '거북형 자물쇠'라 하기도 한다. 또한 열쇠를 여닫는 과정에서 딸깍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딸깍 자물쇠'라 부르게도 한다.

(5) 독립형 자물쇠

독립형 자물쇠는 가장 일반적인 자물쇠의 형태로 자물쇠가 가구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자물쇠이다. 독립형 자물쇠의 종류에는 ㄷ자형 자물쇠, 배꼽 자물쇠, 물형 자물쇠, 글자 자물쇠 등이 있다.

<사진 31> ㄷ자형 자물쇠와 열쇠

<사진 32> 배꼽 자물쇠와 열쇠

ㄱ) ㄷ자형 자물쇠/ 사각몸통 자물쇠

독립형 자물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물쇠가 'ㄷ'자 모양인 자물쇠이다. 자물쇠의 오른쪽 열쇠 구멍으로 열쇠를 밀어 넣어 열쇠를 여는

형으로 오랜 기간 사용된 형태이다. 크기도 아주 다양해서 20cm까지 큰 형태도 있다. 이 자물쇠를 '사각몸통 자물쇠'라 부르기도 한다.

ㄴ) 배꼽자물쇠/ 수박 자물쇠/ 똥글베이 자물쇠/ 함박 자물쇠

배꼽 자물쇠는 자물쇠 몸통이 배꼽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물쇠 몸통 바탕은 위의 ㄷ자형 자물쇠(사각 몸통 자물쇠)인데 그 위에 반구 모양이 붙어 배꼽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배꼽 자물쇠를 '수박 자물쇠, 똥글베이 자물쇠, 함박 자물쇠'라고 부르기도 한다.

ㄷ) 물형 자물쇠

물형 자물쇠는 자물쇠 모양이 어떤 사물,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물쇠이다. 동물의 모양을 띠는 물형 자물쇠가 가장 많은데 붕어, 용, 거북, 박쥐 모양 등 다양하게 제작된다. 모양을 본 떠 붕어 자물쇠, 용 자물쇠, 거북 자물쇠, 박쥐 자물쇠라고 부른다.

ㄹ) 글자 자물쇠

글자를 본 떠 만든 자물쇠도 있는데 희(喜) 자물쇠, 복(福)자 자물쇠, 수(壽)자 자물쇠 등 삶의 염원을 담은 자물쇠이다.

Ⅲ. 요약 및 마무리

본 조사는 장석과 관련된 어휘를 형장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경상남도 경남무형문화재 31호 두석장 정한열을 찾아가 그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우선 두석이라는 말의 의미와 두석의 재료를 살펴보고, 두석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용어를 조사하면서 기존에 경상남도 충무지역의 두석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어휘와의 공통점, 차이점에 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두석의 종류와 이러한 두석을 이용한 제작품을 조사

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석의 재료로는 무쇠, 청동, 황동, 백동 등이 사용된다. 무쇠를 경상도 지역에서는 색깔이 검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거멍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꺼멍쇠'로 발음한다. 이 거멍쇠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거멍쇠는 무쇠가 습기에서 쉽게 부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 검은 그을음을 쇠고 들기름을 발라 검게 만든다. 이 작업은 3~7회 반복하여 만드는데 횟수가 많을수록 검은 빛을 띤다. 청동은 거멍쇠 다음으로 사용된 재료로, 청동으로 제작된 장석은 거의 고려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다. 청동 다음으로 황동이 사용되었는데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넣어 만든 합금으로 가공하기 쉽고 녹슬지 않아 공업 재료로 많이 쓰는 재료이다. 백동은 가장 나중에 사용된 재료로 흰 빛을 띤다. 백동이 본격적으로 장석의 재료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이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백동 장석이다.

2) 제작도구로는 불우리, 화덕, 풀무, 골판, 골판 상자, 집게, 쇠판, 망치, 모루, 작두, 통박, 차장, 깍칼, 차장, 차장받침쇠, 꺽쇠, 굴림통, 정, 줄, 본, 그림쇠, 그음쇠, 땜숟갈, 붕사, 붕사그릇, 활비비, 솟대, 갈기, 광쇠, 도가니, 오가리 등이 있다. 장석 제작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정과 망치, 그리고 이 작업대형식인 모루이다. 모루 중에서는 재미있는 말이 있었는데 기차 철로를 끊어서 만든 철까치모루이다. 철까치모루를 경남에서는 철까치몰띠라고 부른다. 또 다른 작업대로 통나무를 절단해 만든 것이 있는데 '통박'이다. 통박은 진주에서는 '톰배이'라고 부른다. 장석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해 깨진 항아리를 갈아서 짚이나 천에 묻혀 닦는데 항아리를 오가리라 부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가리가 항아리의 전라도 방언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3) 목재 가구에 부착되는 장석의 종류는 그 쓰임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장석은 크게 기능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적인 장석에는 경첩, 들쇠, 앞바탕, 광두정, 자물쇠 등이 있고, 장식

적인 것에는 문자장석과 문양장석이 있다. 초기의 장석은 기능적인 것이 중심이었으나 나중에는 장식적인 장석이 발달되면서 목가구를 한층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장석은 다양한 목가구에 쓰인다. 물론 목가구 이 외에도 쓰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목가구이다. 장석이 사용되는 목가구로는 장, 농, 빗접, 좌경, 함, 문갑, 궤짝, 사방탁자 등 아주 다양하다. 목가구 별로 이용되는 장석의 종류나 문양, 장석의 재료는 지역마다 그리고 제작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석에 관한 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장석에 관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문헌 자료가 가진 현장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문헌 자료는 대부분 한자어 등의 전문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지역 현장에서의 어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두석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관련 어휘를 수집해 봄으로써 두석에 관한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두석에 대한 조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두석에 관한 기본적인 어휘망을 구축하였지만 정밀하고 세세한 어휘 발굴에는 한계가 있었다. 제보자 1인을 중심으로 한 조사였고, 제보자가 예전에는 사용했던 말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못 찾은 어휘도 있어 아쉬움을 더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영과 진주 지역의 두석 관련 어휘는 기본적으로 조사되었지만 경남의 대표적인 두석 생산지인 남해, 밀양, 양산, 김해에서의 조사도 병행되면 관련 어휘를 더 풍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관련 주제의 비교, 대조 조사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이 논문은 2019년 7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9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권유리, 「반닫이 장석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 영남대석사학위논문, 2006.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1.
박용수, 『겨레말갈래큰사전』, 한글문화연구회 출판부, 1992.
박용수, 『새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예용해, 이종석, 『두석장 문화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9.
이훈종,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1992.
진주신문사, 『나의 지게자리-조선조가구장식 문양집과 태정 민속박물관장의 일생』, 1995.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홍기옥,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07.
홍정실, 『장석과 자물쇠』, 대원사, 1993.

▒ Abstract

A Study on Vocabulary Related to Jangseok

-Focusing on the words of Gyeongnam

Hong, Gi-ok

This paper aims to systematically organize lexical expressions related to jangseog by field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Dooseokjang (Jung Han-yeol, Gyeongnam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31) in Jinju, Gyeongnam, where feldspar production was active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used ethnography research method in which the survey was conducted in close contact with the survey sub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mainly on the questionnaire items prepared in advance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supplementary survey was conducted after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gain regarding the vocabulary learned through the informant during the survey.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divided into feldspar concept, materials, manufacturing tools, manufacturing techniques, types (products)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the corresponding subitems were examined. The survey results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ere divided into vocabulary Excel data, audio data, photo data, and video data. As a result, relevant vocabulary (221), audio data (oral data / segmented data), visual data (180 photos), and video data (3 files) could be collect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constructing a vocabulary related to living

tools amo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at is disappearing through this study.

keywords
feldspar, vocabulary, headstone, lexical semantics